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The Big Short)

2071012 이노협 IT공과대학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채권으로 미국의 은행들은 돈을 어마 무시하게 번다. 30년을 기간으로 잡고 대출을 갚는 모기지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높은 AAA등급의 모기지들을 모아서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번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돈 버는 맛에 중독되어 AAA등급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는 등급이 낮은 모기지 채권들을 모아서 AAA등급으로 둔갑시켜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모기지 채권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모기지 채권의 붕괴를 예상한 네 집단이 등장한다. 이 네 집단은 주택시장의 붕괴의 돈을 걸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주택시장이 견고해 붕괴하지 않는다 했는데 결국 거품 주택시장이 붕괴된 것이다. 네 집단은 나라가 망하는 데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네 집단은 돈을 어마 무시하게 벌었다. 사기를 친 은행과 그 은행을 도와준 신용등급 평가원 등 월 스트리트에 있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방을 먹여 돈을 벌려던 네 집단은 본질적으론 나라가 망해 자살률이 올라가는 미래에 배팅을 한 것이다.

청렴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들 사기로 돈을 버는 상황에 그런 사기치는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 붕괴에 돈을 건 상황인 것이다. 정직하게 일하기보다 돈을 쫓았고, 그저 경쟁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결국 네 집단의 주인공들도 주택시장의 붕괴의 돈을 걸어서 돈을 번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각자의 이득만 생각하면서 한두 명의 거짓된 행동들이 모여 미국 사회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든 생각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관계의 신뢰와 능력 등을 판단해 회사와 회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돈이 오가는 거래가 성사된다. 이런 거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된다. 믿음을 바탕으로 거래에 박차를 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간이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도 안되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하다. 내가 믿을만한 기관인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거래와 상관없는 감정들은 무시하는 게 좋다. 나의 형제, 가족, 친구 등등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거래하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이다. 아직 사회에 직장을 가지기 전이고, 주식과 펀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인데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돈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있다. 그러니 내가 더 알고 내가 깨어있어야 나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사기행각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히 입장을 세울 수 있다. 근처 지인들에 의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나의 근처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라던 친구의 어머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돈에 있어서는 냉정해져야 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거래에선 신중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나에게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라는 말이다.